

2010

10월 31일

제18권 44호

마데데스

1940년 11월 14일 창간 100주년 기념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칼럼 column

간청은 기도에 대하여 ④

말한 대로 여행 중에 있는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 떡을 빌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거절할 명분이 없다. 그러므로 인간적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만약 인간적 관계가 개입 된다면 일단 저녁 늦게 찾아와 번거롭게 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하고 친구에게 잘 보이며 사정을 해야 한다.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상대방의 눈치를 봐야 한다. 이것이 현대 교인들이 하는 기도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한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주는 존재로만 여긴다. 그래서 기도를 응답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좀 더 기도다우며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 궁리하게 되고 여러 가지의 기도 방법과 응답받는 비결이라는 것까지 고안해 낸다.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외치면 더 열정적인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 잠깐 기도하는 것보다 오래 기도하는 것이 더 정성스러운 기도라고 생각하고 철야기도를 한다. 기도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보다는 기도하는 태도에 중요성을 두는 것이다. 뭔가 부탁을 하는 입장에서 부탁을 들어주는 대상의 마음에 들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정성과 열심에 초점을 두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벧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않는다'는 말은 '너의 열심과 정성을 인하여는 주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친구라는 인간적 관계 때문에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인간적 관계, 또는 인간적 조건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자기 열심과 정성이라는 조건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거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간청이라는 말을 자기 열심과 정성을 동원하여 자신의 간절함을 보여주는 간청으로 이해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간청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는 '너의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된 정당한 요구여서 거절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소용대로 주겠다'라는 뜻과 같다. 친구라는 인간관계와 조건으로는 거절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간청 이든 간청 이든 열심과 정성이 담긴 기도의 의미로 이해하기 때문에 9,10절의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는 내용도 같은 의미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다.

하지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으며, 무엇을 위해 문을 두드리는가에 중점을 두고 이해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것을 구하고 찾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정당한 것을 구하는데도 정성과 열심을 동원해야 하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인간적인 것에 감동을 받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다.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구하면 주실 수밖에 없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것이다. 열심과 정성을 동원하여 응답받고자 하는 것은 신을 찾아 자기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종교성일 뿐이다.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421-9049 425-9049 070-7648-9049

<http://onlycross.net> 신윤식목사 sys5806@hanmail.net 019-832-9049

주일낮 설교



이르지 말라 마 17:9-13

◎ 고난과 죽으심으로 이루어질 영광의 세계 ◎

예수님은 왜 하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신자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고난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머릿속에 굳게 각인되어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이상한 것도 이해하지 못할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보다 못해서 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제자들보다 더 좋아서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곧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임을 인정하고 그 길에 기쁘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를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시고 그 곳에서 영광스럽게 변한 예수님의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목격한 것은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막 셋을 짓고 그 곳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영광의 세계를 계속 누리고 싶어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영광스럽게 변한 예수님의 모습 또한 세상에서의 실체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즉 하늘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곳에 있음으로써 하늘의 영광을 계속 누리 고자 했지만 그 영광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하는 그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라한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 오셔서 고난과 죽으심의 길을 가는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세상이 알지 못한 영광의 세계의 문이 되었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 길로 오라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눈을 들고 보았을 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던 이유도 예수님만이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는 문이 되시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어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9절)고 명하십니다. 제자들은 분명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천국을 본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영광된 장면을 다른 제자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금하십니다. 왜 말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다른 제자가 왜 우리는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항의하고 시기할 것이 염려되어서일까요? 물론 그 같은 사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제자들과의 관계가 염려되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은 성경의 깊은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한 얕은 시각일 뿐입니다.

이상한 것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시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대꾸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10절)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로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마치 일반인이 철학자들의 대화를 듣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들의 대화를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하지만 성경을 토대로 해서 그 대화의 세계에 발을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4:5-6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불 말과 불 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

리아를 다시 보내시겠다는 예언의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보내시는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키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돌키지 않으면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예언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엘리야가 온다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키지 않는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고,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고 영광을 누리는 새로운 세계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산에서 엘리야를 목격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엘리야가 왔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엘리야가 왔기에 그들이 기다리고 소망했던 새로운 영광의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왔고 이제 선지자가 예언한 영광의 그 날이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산 아래 제자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본 것은 영광의 세계입니다. 그 영광은 장차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지는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고난도 죽음도 부활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메시아가 왜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하는지 그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말하는 영광의 세계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삭제된 참된 영광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부활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영광이 무엇인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세상에 증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고 하십니다.

엘리아에 대한 문제를 꼬집어 낸 제자들에게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다시 보내시겠다고 한 엘리야는 산에서 목격한 엘리야가 아니라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엘리야를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여 죽였습니다. 이것이 인자가 가야 할 길이고, 인자가 가야 할 길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엘리야가 온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한 엘

리아가 세례요한을 가리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례요한은 엘리야로 세상에 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세례요한을 하나님이 예언하신 엘리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엘리야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대우하고 결국 죽음을 당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가실을 그대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왔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임의로 대우합니다. 세상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버립니다.

예수님은 고의로 죽음을 유발하신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것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공식을 세우시고 예수님은 그 공식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자신을 죽이도록 하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의로 오셔서 세상에 그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의를 불편해 했고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이 기다린 메시아와 다른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하늘의 의를 거부한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 고난의 길 ◎

이제 생각할 것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하늘의 의를 답받지 않게 여기고 불편해 한 세상의 반응의 결과였다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 역시 고난을 회피한 채 믿음의 길을 갈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세상이 불편해 하는 예수님의 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기피하고만 싶어 합니다. 고난은 곧 고통이고 고생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의 삶에 일치시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다는 것은 어쨌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예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때문에 신자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고난을 자신의 삶에 일치시켜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안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킬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고난을 회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인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자가 예수님의 의를 증거하는

길을 가고자 한다면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의 의를 불편해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세계 안에서부터 불편해합니다. 예수님의 의는 인간의 의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는 자기 행함을 통해 구축됩니다. 이처럼 자기 행함을 통해 자기의 의가 구축되고 그 의를 세상이 인정하고 높여주는 것은 큰 보람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를 적당히 인정해주고 칭찬하며 높여주는 것이 행함을 유발하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성장으로 연결됩니다. 때문에 인간의 의를 부인하는 예수님의 의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고난이 없는 길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다른 믿음일 뿐입니다.

신자는 자기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성취하실 미래의 참된 생명의 세계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성취하실 미래의 참된 생명의 세계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사실 생명의 세계보다는 현재 세상 속에서 자기를 성취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높은 곳으로 끝없이 오르고 싶어 하고 오르기 위해서 싸우며 삽니다. 이런 우리에게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다가오기 십상입니다.

신자가 생명의 세계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과 고난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고난이 없으면 천국을 소망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것일까요? 물론 고난이 구원의 조건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을 기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과연 종말론적 신앙인지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산에서 목격한 영광의 세계를 예수님의 부활 전까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신 그 뜻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영광의 세계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 열려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목회도 성공과 실패라는 잣대로 평가되는 세상에서 참된 성공과 실패는 오직 종말론적으로 평가될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세계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것만이 참된 성공과 실패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기준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주일오후 설교



사도의 자랑

살후 1:1-5

(1강 10.3일 설교)

세상에는 사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사탄의 활동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자가 사탄의 활동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탄이란 존재를 의식하지 않거나, 사탄에 대해 오해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은 사탄을 단순히 악한 영으로만 생각합니다. 인간을 꾀어서 악한 일을 하게 하는 존재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악한 사건들이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흔적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신자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즉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사탄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면서 선하게 살아간다면 사탄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같이 사탄의 활동을 감지하십니까? 과연 무엇으로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세상임을 감지하십니까?

사탄은 사람들에게 인간이 기대하는, 인간의 욕망과 일치된 메시아 관을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일치되지 않는 것은 거부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다른 예수가 등장하고 거짓선지자가 나타나며 참된 복음이 배척을 받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배척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핍박을 받는 현상을 보면서 신자는 사탄의 강력한 활동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믿음의 길이 순탄하고 평안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헛된 상상이고 환상일 뿐입니다. 사탄이 활동하는 세상은 결코 믿음에 대해 호의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사상과 이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거부하는 인간의 악함의 결과입니다.

지금도 믿음의 길에는 핍박이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가 받았던 핍박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와 법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핍박의 양상 또한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동일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진리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진리를 말하나 인간의 기대와 일치되지 않는 것은 진리로 인정하

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에서 진리를 따르는 신자에게는 필연코 주어질 수밖에 없는 팽박입니다. 이러한 신자의 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낸 후 팽박이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 더욱 강하게 팽박을 한다고 해도 신자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도 낙심하지도 말라는 권면을 위해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고 말합니다.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말한 대로 사도가 처음 편지를 보낸 후 데살로니가 교회의 팽박은 더욱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단지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사도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가 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이 도무지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환란과 팽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분명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한 심정이 될 수 있고 편한 길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오히려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세상을 거꾸로 사는 것 과도 같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팽박이 심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이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을 책임지고 계신 결과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도는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것이고, 때문에 항

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 교회에서 친히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감사와 자랑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합니다. 기쁨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가 옥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옥에 갇힌 것까지도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사도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내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편하고 풍족한 인생을 원할 뿐이고 하나님의 일도 그런 방향으로 되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잘되는 일에는 감사하고 힘든 일에서는 낙심할 뿐입니다. 항상 감사와 불평이 반복되고 자랑과 낙심 또한 반복합니다. 매일 같이 변덕을 부리면서 하나님이 아닌 나를 바라보며 삽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믿음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볼 때 믿음은 힘없는 자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 것을 가질 수 없어서 신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약한 모습일 뿐입니다. 또한 믿는다고 해서 잘되는 것도 아니기에 믿음은 자랑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내게는 믿음이 있다고 소리를 지르고 자랑한다고 해도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해와 환난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초라한 몰골이라면 조롱을 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고, 믿음을 존귀하다고 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이 주어진 것을 나의 자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믿음을 진심으로 존귀한 것으로 여긴다면 믿음이 있는 나를 잘된 것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세상의 시각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우리들은 그러한 자랑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때때로 믿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내 놓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내놓을 것이 없어서 부끄럽습니까? 무엇을 내놓고 자랑하고 싶습니까? 신자가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고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항상 죄 가운데서 허덕이며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매일 붙드시고 지키시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로 살게 합니다. 이같은 예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신자는 영광의 세계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마지막의 순간에 서서 세상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본다면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사탄이 활동하는 세상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지켜 주시면서, 항상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도록 일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에 마음을 두고 높아지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된다면 항상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손에 쥐었다고 해도 순간 더 많은 돈을 꿈꾸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살린다고 생각합니까? 돈입니까? 물론 돈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없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생존의 근거는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존귀한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설사 극심한 환난이 주어진다고 해도 환난을 보기 보다는 환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눈에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박해와 환난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믿음이 전부고 삶의 중심이며 감사와 자랑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수요일 설교



니느웨에 대한 경고

나 1:1-8

(1장 10.20일 설교)

나훔은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니느웨는 앗수르의 수도인데 선지자가 심판을 경고할 때는 북쪽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유다가 앗수르에 의해서 큰 위기에 빠져있을 때입니다.

니느웨가 심판을 경고 받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괴롭혔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괴롭힘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세워서 하신 일입니다. 때문에 앗수르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유다를 괴롭힌다는 것이 심판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앗수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앗수르가 곧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였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진노를 품으시고 보복하시겠다는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앗수르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써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앗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까지 위협에 빠뜨리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앗수르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없는 그들은 모든 것을 자신들의 힘의 결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스라엘을 조롱을 합니다.

왕하 18:33절부터 보면 유다를 공격한 앗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자신의 공격에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유다를 조롱합니다. 당시 랍사게는 유다를 힘없는 존재로 여기면서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그들을 앗수르의 손에서 건질 수 없을 것이라고 조롱 합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가 위협에 처한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무능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신으로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앗수르에 대해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보복하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당장 심판이 내려지지 않는지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와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고 말합니다.

여호와와는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대신 아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들을 내세워서라도 죄에 대해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와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앗수르가 당장 죄에 대한 보복을 당하지 않은 것은 여호와와는 노하기를 더디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것은 자기의 죄를 알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만약 죄에 대해서 그 즉시 보복하신다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는 없습니다. 벌써 심판과 함께 영원한 죽음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세상은 분명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조용합니다. 그 이유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오래 참으면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을 믿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자 하는 백성을 모두 부르실 때는 하나님은 참고 계실 뿐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심판도 농담처럼 여기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에 대해 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 선지자의 경고입니다.

6절을 보면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라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서서 그 분노를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는 세상을 깨뜨리고 사라지게 할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경고 아래 있는 세상은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 하시면서 오래 참고 계실 뿐입니다. 세상은 오래 참으심조차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아예 부인하는 증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무리 인자와 자비를 나타내고 보이신다고 해도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조롱할 뿐입니다. 이러한 세상은 하나님은 진노와 보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신자는 말씀으로 인해 세상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평온한 세상이 아니라 진노와 보복으로 인한 심판이 경고되어 있고 예비된 세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을 조롱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고, 자신 또한 하나님의 간섭으로 살고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피할 곳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7,8절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 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고 말합니다.

세상은 화재나 홍수나 지진과 같은 자연 재해가 발생했

을 때 살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을 미리 교육합니다. 그러면 누가 심판 때에 건짐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이유는 여호와를 거스르고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무능한 존재로 조롱을 하고 자기들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살아계신 분으로, 그리고 참된 권능자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심판 때 건짐 받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자에게는 믿음이 곧 힘입니다.

기독교인이려면 누구나 여호와가 피난처라는 말을 합니다. 과연 그 말이 진심일까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도 그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을까요? 힘든 문제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절망으로 밀어 넣어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면 여호와가 피난처라는 말을 진심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은 절망적인 상황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게 되면 세상은 존재할 수 없고, 생명을 유지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현장에서 희망이 무엇입니까?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입니다. 신자는 이러한 현실을 미리 예상하는 신자는 항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유일한 피난처로 알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아신다고 합니다.

돈으로 사는 인생, 권력이 좋은 인생, 그 모든 것은 잠시 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도 권력도 심판이라는 절망의 자리에서는 힘도 희망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현장에서 우리를 건지는 힘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기 때문에, 말씀의 세계를 사는 신자는 항상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감사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영원한 어둠으로 쫓겨갈 때 신자는 영원한 빛의 세계로 인도 받게 됩니다. 심판이 없다면 우리도 땅의 것을 얻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심판이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경고는 이 세상의 결말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이 일을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

오전 11시

인도 /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다 함 께
사도신경	다 함 께
찬 송	80장
교 독 문	19(사32)
기 도	이영민 장로
찬 송	452장
성경봉독	마 17:9-13
설교제목	이르시 말라(111장)
기 도	설 교 자
찬 송	445장
교회소식	이영민 장로
찬 송	2장
축 도	설 교 자

다음주기도 : 조규연 장로

주일 오후 예배

오후 2:20

인도 / 신윤식 목사

사도신경	다 함 께
찬 송	569장
기 도	장영대 집사
찬 송	542장
성경봉독	살후 2:1-7
설교제목	불법의 사람 (4장)
기 도	설 교 자
찬 송	585장
주기도문	다함께

다음주기도 : 최두임 집사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인도 / 신윤식 목사

나눔 강해(3강)

하나님을 찾는 자

신윤식



하나님을 찾는 자
이해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야 하지요

이해되어지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필요해서 만들어진 자의
존재의 의미는
자신이 아니라
만든 그분께 있는 것이지요

필요해서 만든 그분의 뜻에
모든 존재의 원인이
담겨 있으니까요

존재의 원인이
남에게 있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있는 그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
이해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야 하지요

교회소식



예 배	시 간	예 배	시 간
주일 낮	오전 11:00	어린이	오후 1:00
주일오후	오후 2:20	장년성경공부	(주)오후 1:00
수요일	오후 7:30	청년성경공부	(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기도회	오후 8:00